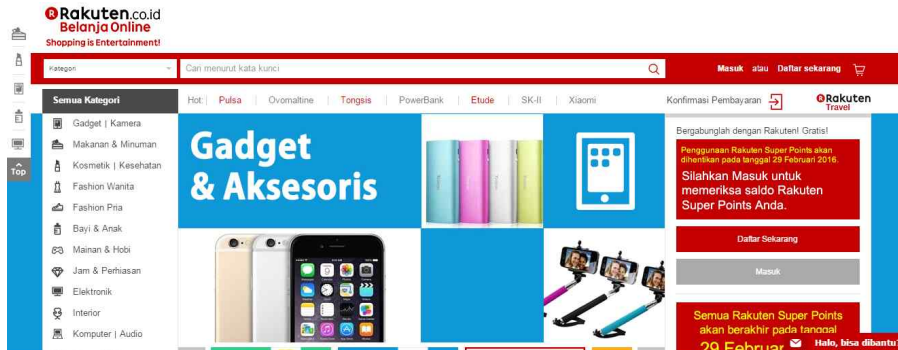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측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EC) 관련 기업의 외자 제한을 철폐할 방침을 밝힌 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협회 측은 최신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EC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출자 비율을 제한한 투자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을 골자로 한 제10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DNI 개정안에 따르면 EC 분야의 경우, 외국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출자 비율은 100%까지 인정되며, 투자액이 100억 이상 ~1,000억 루피아 미만이면 출자비율은 49%가 적용된다. 또, EC분야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 미만이면 외자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니엘 IdEA 협회장은 “외자 진입은 EC업계 발전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협회장은 외국 기업의 앞선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산업에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언론은 라쿠텐이 철수 절차를 밟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환불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철수계획을 밝힌 일본계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



- 라쿠텐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미디어 그룹인 MNC그룹과 합작으로 출범한 후 있다. 2013년 MNC그룹의 지분을 인수해 100% 단독법인 형태로 사업을 벌였으나 이같은 수순을 밟게 됐다.
-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현지 기업들의 시장 장악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시장으로 인해 가시적인 실적보다 치열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Jakarta Biz Weekly